

# TFA : 침수지역 시나리오

물위의 소녀

노치영



업데이트 기록			
날짜	내용	작성자	패치 내역
2024.03.20	내용 추가 및 워드 작업 보강	노치영	1.1.0
2024.03.21	내용 추가	노치영	1.1.1
2024.03.21	내용 추가	노치영	1.1.2
2024.03.23	내용 추가 및 정리 작업	노치영	1.2.1

# 목차

Chapter 1 : 불안의 시작 .....	3
Chapter 2 : 혼란의 도시 .....	9
Chapter 3 : 생존의 길 .....	15
Chapter 4 : 또 다른 갈등 .....	22
Chapter 5 : 엔딩 .....	26

# Chapter 1 : 불안의 시작

[메트로시티 골목]

골목 안 낡고 허름한 빌라들 사이에 "B3-127"이 적혀 있는 빌라 그 안에 한 소녀가 자고 있다.

소녀의 엄마가 다정한 목소리로 소녀를 깨운다 "리베라 어서 일어나렴. 스텔다 아줌마 일손을 돕기로 하지 않았니?"

그러자 리베라는 졸린 눈을 비비며 일어나며 아직은 잠이 다 깨지 않은지 웅얼거리며 대답한다. "네에.. 엄마"

리베라는 간단하게 세수하고 옷을 갈아입는다. 나갈 채비를 마친 리베라는 낡고 녹슨 문을 열자, 기분 나쁜 마찰음이 들리며 메트로시티의 골목이 보인다.

리베라는 한숨을 내쉬며 말한다. "오늘도 메트로시티 골목이네."

수명이 다해 깜박거리지만, 화려한 네온사인과 구석에는 갈 곳이 없는 부랑자들이 자는 모습이 보인다.

리베라는 당황스러운 듯 조심히 계단을 올라가며, 메트로시티 도심이 펼쳐진다.

[메트로시티 도심]

Index

도심의 건물에 곳곳에는 판자로 막거나 급하게 수리한 흔적들이 보이지만 메트로 시티즌은 밝고 수더분하게 생활하고 있다.

리베라는 거리를 지나 스텔다 아줌마의 음식점으로 들어간다.

식사하는 메트로 시티즌들 넘어 주방에서 중년의 여성인 스텔다가 보인다. 스텔다는 분주한 듯 리베라에게 말한다.

“이제 왔니 리베라? 기다리고 있었다. 일단 이것 좀 3 번 테이블에 가져다주겠니?”

(리베라는 앞치마를 매며 능숙하게 그릇을 받으며 대답한다) “오늘 많이 바빴어요?” 리베라는 음식을 서빙하고 다시 스텔다에게 간다.

스텔다는 이제 좀 여유가 생겼는지 의자에 앉으며 능청스럽게 말한다. “어휴 그래도 네가 오니까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은데?”

그리고는 스텔다는 갑자기 말이 빨라지며 리베라에게 심부름을 시킨다.

“맞다 아까 건물벽에서 물이 또 새는 거야. 왼쪽으로 쪽 나가면 있는 우리남편 가게 있지? 거기 가서 나무판자 같은 거라도 좀 가져와 줄래?”

“네 알겠어요. 금방 갔다 올게요.” 리베라는 다시 밖으로 나와 상점을 향해 간다.

리베라는 평화로운 메트로 시티즌과 도심의 풍경을 보며 상점에 도착한다. 상점 앞에서 짐을 옮기고 있는 매턴더 아저씨가 보인다.

매턴더는 조금은 지친 여색이 있는 목소리로 리베라에게 말을 건다. “어 리베라 아니냐? 무슨 일로 왔니?”

“스텔다 아줌마가 나무판자 좀 가져 오래요 또 물이 새고 있나 봐요”

매턴더는 걱정스럽지만 태연하게 말한다. “아이고 또 물이 새니? 요새 사람들 사이에 우리 도시가 잠긴다는 헛소문도 돌던데 이거 이러다 전부 물고기 밥 되는 거 아닌지 몰라~”

“아 맞다 판자 좀 달라고 했지? 자 여기 있단다.” 매턴더는 리베라에게 나무판자를 주며 다시 허리를 꼴꼴이 세우며 짐을 옮긴다.

매턴더에게 나무판자를 받은 리베라는 음식점으로 향했다. 음식점에 도착하자 스텔다는 놀라고 다급한 모습으로 리베라에게 말한다.

“리베라! 지금 메트로시티 골목이 물에 잠기고 있다고 한단다. 어서 가봐 부모님이 아직 집에 계시지 않니?”

리베라는 스텔다의 말을 듣고 당황스러운 표정을 하며 곧장 메트로시티 골목으로 향했다.

리베라는 애써 부정하며 계단을 내려갔지만,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져 있었다.

[메트로시티 골목]

골목은 이미 물에 잠겨 있었고, 침수가 진행 중이었다.

(놀란 표정으로) “이게 대체 뭐야? 여기가 어째서...” 리베라는 주변을 둘러보면서 파괴된 건물과 떠내려온 쓰레기들을 물끄러미 보고 있었다.

물길을 피해서 집 앞으로 돌아가자, 부모님께서 급히 짐을 옮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아버지는 리베라를 발견하게 되고 걱정스럽고 놀란 목소리로 말한다 “리베라 어디 다치진 않았니? 아직 우리집은 그렇게 물이 많이 잠기지 않았구나 이리 와서 짐을 옮기는 걸 도와주겠니?”

리베라는 이 상황이 황당한지 눈을 크게 뜨고 아무 소리도 하지 않은 채 고개만 끄덕였다.

짐을 건져 내는 엄마가 리베라에게 걱정이 가득 찬 목소리로 말한다. “리베라 물살에 휘말리지 않게 조심하 와야 한다”

리베라는 집 앞에서 집까지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게 아주 조심하 건너가며 대답한다. “네 엄마!”

집에 도착하자 물이 무릎 밑까지 차올라 있었으며 도착하자마자 리베라도 같이 짐을 건져낸다.

**Index**

그러자 갑자기 천장에서 금이 가더니 물이 줄줄 새어 나오자 리베라는 아버지에게 나무판자를 건네며 천장을 막으라고 부탁했다. “아빠 이 판자로 막아주세요. 얼른요!!”

아버지는 금세 짐 위에 있던 공구를 들고 가구 위로 올라가 천장을 막았다. 아버지는 주변 상황을 파악 후 더 이상 이곳에 있으면 안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정하고 집을 떠난다.

“여보, 리베라 일단은 중요한 짐만 옮겨놓고 안전한 곳으로 가 있어 내가 미들시티에 가서 도와 달라고 해볼게.”

엄마는 걱정스러운 표정과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을 보낸다.  
“알겠어요... 여보.. 조심히 갔다 와야 되요”

리베라와 엄마는 짐을 거의 다 옮기게 되었고, 마지막 남은 짐을 옮기는 동안에도 물은 계속해서 차오르며 엄마는 리베라에게 짐이 있는 쪽에서 기다리라고 한다. “리베라 여기서부터는 엄마가 옮길게 저기에 가서 기다리고 있으렴.”

리베라는 두렵지만 계속되는 침수에 지친 듯 말한다. “네 엄마.. 빨리 와야 해요..”

리베라는 짐 주변에서 기다리고 있고, 엄마가 가족사진이 담긴 짐을 리베라에게 건내 주었을 때 천장의 틈이 갈라지고 천장을 막고 있던 나무판자와 물이 쏟아지며 엄마가 급류에 휩쓸려가게 된다.



그 장면을 목격한 리베라는 비통에 찬 목소리로 엄마를 불렀다.  
“엄마!!!”

엄마를 구하러 가기에는 이미 어느 정도 멀어졌으며 주인공은  
절망에 빠졌지만 다시 힘을 내어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모든  
짐은 내버려둔 채 메트로시티 도심으로 향했다.

## Chapter 2 : 혼란의 도시

[메트로시티 도심]

도시의 혼란 속, 리베라는 물에 잠긴 고통스러운 골목을 떠나 도심가로 향했다. 그곳에서 음식점을 약탈하려는 부랑자와 스텔다의 몸싸움을 목격한다.

부랑자는 눈을 부릅뜬 채 스텔다에게 위협을 가하자 리베라는 용기를 내어 가까이 다가간다.

"어이 아줌마 음식점을 두고 당장 꺼져! 안 그러면 험한 꼴 보게 될 거야."

리베라는 공포를 느끼지만, 결의를 가지고 부랑자에게 다가가며 말한다. "아저씨! 그러지 마세요!"

부랑자는 리베라를 무시하고 스텔다를 위협하려고 할 때, 리베라는 스텔다를 도와 부랑자를 막기 위해 밀치며 이후 스텔다가 부랑자를 제압해 쫓아낸다.

스텔다는 감사의 표시로 리베라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리베라에게 미들시티에 있었을 때 등반할 때 쓰던 등반 장비인 피켈을 건네준다.

Index

"고마워, 리베라야. 네가 도와줘서 정말 다행이다. 앞으로 이런 상황에 스스로를 지키려면 힘이 필요할 거야."

리베라는 피켈을 받아들이며 감사를 표현하고, 엄마가 처한 상황을 말하며 도움을 구한다.

"고마워요, 아줌마... 엄마가 급류에 떠내려갔어요.. 혹시 도와주실 수 있나요...? 엄마를 구하고 싶어요..."

스텔다는 생각에 잠기며 말한다. "하수도에 사람이 한 명 떠내려가는 걸 보긴 했는데 너의 엄마일지 모르겠구나."

스텔다는 엄마가 떠내려간 하수도를 알려주며 리베라에게 안내한다. 리베라는 스텔다를 따라 같이 걸어간다.

[제 1 하수도]

리베라와 스텔다는 물살이 강하게 흐르는 하수도에 도착한다. 엄마가 떠내려간 방향으로 향해 빠르게 걸어간다.

지하 하수로의 수문에서 버티고 있는 엄마를 발견한 리베라와 스텔다. 그들은 힘들게 엄마를 끌어올려 물에서 벗어나게 성공한다.

엄마는 숨을 고르며 리베라와 스텔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고맙다, 리베라.. 고마워요, 스텔다... 너희 덕분에 살았어."

숨을 고르는 것도 잠시 그 순간, 새로운 급류가 몰려온다. 엄마는 다시 물살에 휩쓸려간다.

**Index**

리베라는 절망 속에서 엄마를 구하려고 손을 잡지만 너무 강한 물살에 스텔다가 리베라를 가로막으며 리베라를 저지한다.

“리베라! 이 손을 놓으렴, 너까지 위험해져” 물살에 휩쓸리고 있는 리베라의 엄마가 다급하게 말했다.

“아줌마 제발 놔주세요. 엄마를 구해야 돼요..!” 스텔라는 리베라를 끌어당기며 말한다. “안돼 리베라! 너까지 휩쓸리고 말아”

리베라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물에 휩쓸려가는 엄마를 바라본다. 엄마와 멀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리베라는 슬픔에 빠진다.

스텔다는 슬픔에 빠진 리베라에게 조심스럽게 말한다. “리베라.. 그 손을 놓지 않았다면 너도 휩쓸렸을 거야...” 엄마를 잃은 리베라는 스텔다를 향해 울부짖었다. “아줌마가 없었으면 저희 엄마는 살았을 수 있었을 거예요!!” 리베라는 슬픔에 빠지며 스텔다를 원망했지만, 리베라도 속으론 손을 놓지 않았다면 본인도 휩쓸렸을 거란 것을 알고 있었다.

“리베라.. 언제까지 여기있을 순 없어. 엄마는 괜찮으실 거야” 차갑고 습한 하수도지만 스텔다의 품에 안긴 리베라는 작은 온기를 느꼈다.

‘그래 엄마는 괜찮을 거야 아빠한테 말하면 다시 엄마를 볼 수 있을 거야...’ 리베라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비참함에 빠졌지만, 스텔다의 위로와 아버지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리베라를 다시 일으켰다. 그렇게 리베라는 미들시티 입구인 지하철 출구로 향한다.

[지하철 출구]

지하철 출구에 도착한 리베라는 떠내려간 엄마를 뒤로한 채, 아버지를 찾기 위해 달려왔다. 그러나 리베라를 기다리던 것은 미들시티로 들어가려는 사람들과 재난을 인지한 미들시티 주민들 사이의 갈등이었다.

미들시티를 들어갈 수 있는 허가증을 소지한 사람들이 미들시티에 들어가려고 해도, 위험과 혼란을 인지한 미들시티 주민들과 미들시티 문지기는 문을 막고 들어오지 말라고 말한다.

"난 허가증이 있다고 빨리 날 들어가게 해줘!!"

"허가증이 없는 사람이 섞여 있잖아 지금은 열 수 없다. 나중에 다시 와라."

그들은 미들시티에 추가적인 위험이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았다.

리베라는 아빠를 찾기 위해 시선을 계속 돌리다가 문 건너편에서 아빠를 발견했다. 그의 모습을 보자마자 안심과 기쁨이 느껴졌다. 그러나 미들시티 주민들에 의해 문이 막혀있어 아빠에게 닿을 수 없었다.

"아빠! 저 여기 있어요!" 리베라는 소리쳤지만, 미들시티 주민들의 제압과 시끄러운 소란 속에 그 소리는 잠깐 들렸다가 사그라졌다.

**Index**

아빠는 문 너머에서 리베라의 목소리를 희미하게 듣고 고개를 돌리며 큰 목소리로 말했다. "리베라!! 엄마는 어디에 있니?" 리베라는 잠시 동요한듯 표정이 흔들리며 시선을 내리며 말한다. "엄마는... 죄송해요 제가 지키지 못 했어요."

아빠는 잠시 충격을 받고 슬픔에 빠진 표정을 하였지만 악에 받친 목소리로 다시 말했다. "아빠가 들어올 방법을 알아보고 금방 꺼내줄게!!!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리베라는 절망에 가득 찬 눈물을 흘리며 아빠를 바라본다. 그러나 리베라는 아빠와 함께할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미들시티 주민들의 제압에도 불구하고, 리베라는 아빠와의 잃어버린 연결을 되살리기 위해 희망을 잃지 않고 있었다. 리베라는 다시 일어서고, 아빠와의 재회를 위한 새로운 방법을 찾기 위해 지하철 출구를 떠난다.

(Fade Out)

미들시티로 가는 길이 막힌 메트로시티는 침수로 인한 피해와 더불어 대혼란 속에 빠져 있다. 부랑자들은 침수로 인한 혼란을 이용하여 약탈을 벌이고, 메트로시티즌들은 패닉에 빠져 도시 곳곳에서 도망치고 있었다.

리베라는 침수로 인해 파괴된 집과 잃어버린 가족의 추억으로 괴로움을 겪고 있고 침수에 대한 불안감과 피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심리적으로 고통 받고 있지만, 이러한 혼란 속에서

혼자 생존하기 위해 각성해야 했다. 리베라는 불안정한 환경에서 스스로를 지키고, 생존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찾아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 Chapter 3 : 생존의 길

[지하철 출구]

리베라는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메트로시티에서 매턴더에게 누군가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소문을 듣고, 지하철 출구로 올라간다. 리베라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지하철 출구에 도착한다.

소문을 듣고 온 메트로시티 주민들의 혼돈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지만, 그 순간 구세교의 간부 단테와 짐을 실은 손수레를 끌고 오는 신도들이 나타나 큰 목소리로 메트로 시티즌들에게 구원을 선사한다고 말한다. "여러분 구세교의 교주 메스키아님이 혼란의 시대에 여기 있는 모두를 안전한 트윈스카이 타워에서 풍요로운 식량을 제공하여 구원하신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메트로시티의 주민 중 한 명이 소리쳤다. "이제까지 못 나오게 막다가 꺼내준다는 게 말이 돼?" 사람들은 또다시 수군거렸고 단테는 주민을 잠시 차갑게 쳐다보곤 힐끗 웃으며 대답한다. "맞습니다. 이제까지 스카이 노블들이 본인들의 기득권과 도시에 혼란을 가져오기 싫단 이유로 미들시티즌들에게 문을 막게 시켰던 겁니다. 하지만 교주님은 본인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들을 제압하고 모두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계십니다."

Index



단테의 말이 끝나자 다른 메트로시티 주민이 말했다. “이제라도 구해준다면 나는 따르겠어! 이젠 메트로시티는 지긋지긋해” 단테는 집에서 팔찌를 꺼내며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말한다. “구세교의 신도가 되면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주님의 성스러운 피가 담긴 이 팔찌를 끼면 신도가 될 수 있는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수레 쪽으로 다가가며 한 명씩 팔찌를 끼며 기쁜 표정으로 미들시티로 올라간다.

하지만 리베라는 꺼림직한 단테의 제안을 듣고 그것을 거부한다. 리베라는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메트로시티 내부에 홀로 살아가기로 한다. 리베라는 혼자서도 생존할 수 있다고 믿고, 자신의 용기와 결단력을 발휘하여 도시의 혼란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여정을 시작한다.

[비밀 하수구 통로]

주인공 리베라는 메트로시티에서 자원을 탐색하던 중, 우연히 처음 보는 하수도에 진입한다. 지독한 냄새와 새까만 어둠 속이지만 희망을 품으며 걸어가다가, 오물 처리장으로 향하는 루트를 발견하게 된다.

[오물 처리장]

오물 처리장 안에는 썩은 냄새와 어둠이 가득하다. 그리고 거기에는 리베라를 조심스럽게 쳐다보는 멜런드가 있었다. 리베라는 멜런드에게 자신이 미들시티로 가고 싶다고 말한다.

**Index**

“저기.. 여기는 어디예요? 전 미들시티로 가고 싶어요.”

멜런드는 리베라를 조용히 쳐다보며 말한다. “여기가 미들시티야 이름이 뭐야? 내가 안내해 줄까?”

리베라는 기쁜 듯 감사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한다. “전 리베라라고 해요 메트로시티에서 왔어요.”

멜런드는 리베라의 이름을 듣고 신기한 듯 물어본다. “메트로시티 출신인데 이름이 특이하네? 나도 메트로시티 출신이고 내 이름은 멜런드야.”

리베라는 아련하게 엄마를 떠올리며 차분하게 말한다. “엄마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메트로시티를 벗어나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셨거든요.”

멜런드는 리베라의 아픔을 눈치챈 듯 조심스럽게 대답한다. “좋은 이름이네.. 그럼 따라올래?”

리베라는 멜런드를 따라가기로 한다. 멜런드는 비밀스러운 길을 알고 있었고, 그의 도움으로 리베라는 미들시티를 향해 여정을 시작한다.

이제 리베라는 멜런드와 함께 미들시티로 향하는 길을 걸어간다. 함께한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리베라는 어둠과 위험으로 가득 찬 여정을 헤쳐나갈 것이다.

[산]

Index

멜런드와 리베라는 비밀스러운 길로 오물처리장과 쓰레기장을 건너 근처에 있는 산에 도착했다. 그런데 둘은 갑자기 나타난 굶주린 늑대의 위협을 받게 된다.

“멜런드! 어떡해요.. 너무 무서워요” 리베라가 매우 놀라고 멜런드는 침착하게 상황을 인지하며 대답한다. “리베라 내 뒤에 가만히 있어 괜찮을 거야”

그때 키가 크고 근육질인 청년이 나타나 도움을 받게 된다. 청년은 숙련된 전투 경험을 발휘하며 가뿐하게 늑대를 격퇴하고 멜런드를 뚫어져라 쳐다본다.

멜런드는 청년과 안면이 있는 듯이 친근하게 말을 건다. “어? 톰! 여기에 있었네? 도와줘서 고마워 이 친구는 리베라라고 해 메트로시티에서 왔데.” 멜런드는 리베라를 소개해 주며 리베라는 갑자기 나타났던 늑대와 낯선 인물에게 놀란 듯 멜런드 뒤에 숨어 쳐다본다.

톰은 리베라를 경계하며 불임성이 좋은 멜런드를 구박한다. “멜런드 넌 아무하고 친해지는 습관 좀 고쳐야 해” 멜런드는 톰에게 능청스럽게 대답한다. “미안 미안 근데 혹시 나가는 것 좀 도와주지 않을래?”

톰은 짧은 한숨을 쉬며 대답한다. “하아.. 그래”

툼은 강한 전투력으로 산에서 쉽게 리베라와 멜런드를 도와 미들시티에 도착한다. 하지만 미들시티 내에서도 여전히 식량에 대한 경쟁과 사회적 혼란은 진행되고 있었다.

[미들시티]

“리베라 어찌다가 여기까지 온 거야?” 멜런드는 미들시티 거리를 걸으며 리베라에게 물어본다.

리베라는 조금은 슬픈 얼굴이지만 차분하게 대답한다

“메트로시티가 위험한 것도 있지만 아빠를 찾으려고 올라왔어요”  
멜런드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대답한다. “그러면 일단 셋이 같이 찾아볼까?”

툼은 통명스러운 얼굴을 하며 대답한다. “그러던가” 하지만 이들은 아빠를 찾기 위해 미들시티를 돌아다니지만, 그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

리베라는 아빠를 찾지 못했다는 사실에 절망하며 미들시티의 식량에 대한 경쟁과 사회의 혼란이 줄어들지 않아 보이기에 중단부에서의 탈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임을 깨닫게 된다. 리베라는 모든 위험과 도전에도 불구하고 미들시티를 떠나 상단부인 트윈스카이 타워를 도전해야 겠다는 생각을 한다.

날이 저물고 리베라는 지친듯 기운이 없어 보인다. 멜런드는 그런 리베라에게 기운을 차릴 수 있게 위로해 준다. “리베라 너희 아버지는 괜찮을 거야 아직 하루밖에 안 지났는걸?” 리베라는

멜런드의 위로에 표정이 조금 밝아지며 대답한다. "고마워요 멜런드.."

멜런드는 갈 곳이 없어보이는 리베라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한다. "리베라 갈 곳이 없으면 우리랑 같이 지낼래? 부담스러우면 거절해도 괜찮아." 그러자 리베라는 눈치를 보며 멜런드에게 감사함을 담아 말한다. "그래도 될까요? 제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 톰은 조금은 경계심이 풀렸는지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한다. "또 사람이 늘었구만" 리베라는 궁금하단 듯이 고개를 비스듬히 기울이며 묻는다. "또 늘었다고요?"

멜런드는 미들시티 도시 외각으로 친절하게 안내한다. "따라올래? 그리 멀진 않아"

[미들시티 도시 외각]

오물처리장과 미들시티 도심 사이에 무너진 건물이 있는 도시 외각에 도착한다.

"이런 곳에 살 수있는 곳이 있나요?" 리베라는 눈이 동그래지며 조금은 불안한 듯이 물어본다.

멜런드는 자세히 보지 않으면 찾을 수 없는길로 리베라를 안내한다 "이쪽으로 와. 좀 위험해 보이지만 안락하다고?" 부서진 듯한 건물 사이 천막으로 가려진 입구안으로 들어가자, 2 인용 침대 1 개와 침대 3 개가 비좁게 배치 되어있지만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이 꽤나 갖춰져 있는 내부와 한 소녀가 보인다.

소녀는 처음보는 인물에 낯설어 하지만 같은 여자를 만나 조금은 표정이 편안해 보인다. “저.. 안녕하세요... 저는 샐디라고 해요...” 소녀는 의수로 된 한쪽팔을 끌어 잡으며 소심하게 자기소개를 한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베라라고 해요 멜런드를 통해 여기에서 신세를 지기로 했어요” 리베라는 불편해 하지않게 부드럽고 친절히 자기소개를 하며 인사를 마친다.

“자기소개도 마쳤으니 식사나 할까?” 멜런드는 어색해진 분위기를 풀으려 능청스럽게 대화를 이었다.

“난 피곤하니까 먼저 잔다.” 하루가 고됐던 톰은 2층 침대 위로 올라가 먼저 눕는다.

이제 리베라는 멜런드와 톰, 샐디와 함께 미들시티에서의 탈출을 위한 여정을 시작한다. 이들과 함께 용기와 결의로, 리베라는 미들시티의 위험을 넘어서며 새로운 도전에 맞서게 될 것이다.

# Chapter 4 : 또 다른 갈등

[트윈스카이 타워 입구]

리베라는 새디가 아빠와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트윈스카이 타워 근처에서 봤다는 이야기를 듣고, 멜런드, 톰, 새디와 함께 트윈스카이 타워 주변에서 아빠를 찾다가 구세교의 간부가 된 아빠를 발견한다.

“저희 아빠예요! 근데 왜 저기 계시는 거지?” 리베라는 반가움에 찬 목소리로 말하지만 약간의 불안을 느낀다. 멜런드와 톰은 얼굴이 어두워지며 새디는 측은하게 시선을 아래로 떨군다.

리베라는 아버지에게 다가가려 하지만 입단 테스트를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가까이 다가갈 수는 없다. 종교의 간부가 된 아빠가 종교의 사상에 흠뻑 빠져든 모습에 리베라는 불안감을 느끼지만 아빠를 다시 만난 것에 안도를 느낀다.

리베라는 녹색 제복을 입은 저항군이 시위 도중 구세군이 무력을 사용하는 장면을 목격한다.

“저희 아내는 언제쯤 볼 수 있는 거죠? 제발 답해주세요!” 한 남성이 구세군과 구세교의 간부인 리베라의 아버지에게 큰 소리로 외친다. “간부님 어떻게 할까요.” 덩치 큰 구세군의 병사가

리베라의 아버지에게 묻는다. "저항군이잖아 안 보이는 곳에서 처리 해." 리베라의 아버지는 얼굴을 찡그리며 구세군 병사에게 명령한다.

리베라는 자신이 알던 아버지와 심각한 괴리를 느끼며 불안감이 증가하고 구세군과 저항군 간의 마찰을 인지 하게 된다. 멜런드와 톰은 결국 종교의 어두운 면을 경험하고,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저항군이 된 이야기를 리베라에게 전한다.

"리베라.. 다시 소개할게 나는 저항군의 리더 멜런드야. 구세교의 계급을 나누고 사람을 차별하는 사상이 위험해 보여서 저항군을 만들게 되었어." 멜런드의 눈빛이 잠시 진지해 지며 진중하게 말했다. 톰은 멜런드의 발언에 잠시 놀라며 생각이 많은 듯 고개를 돌리며 얘기한다. "나는 동생이 구세교에 들어간 뒤로 볼 수 없게 돼서 저항군에 들어왔어 재네 하는 짓을 보면 걱정이 되지 않겠어?"

또한, 새디도 불안한 눈빛으로 의수로 된 팔을 잡으며 저항군에 합류한 이야기를 전한다. "나는.. 사실.. 구세교에 들어간 신도였어... 구세교에 들어가면.. 힘들고 무서운 일을 잔뜩 시켜...그래서 나왔어.."

리베라는 구세교와 저항군 사이의 갈등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고민하게 된다. 아빠와의 다시 만남인가, 그 동안 가깝게 지내며 서로를 의지하게 된 저항군인가. 리베라는 구세교와 저항군



사이에서의 선택과 그에 따른 결정을 내려야 할 시기에 직면하게 된다.

리베라는 오랜 시간 동안 고민 끝에 저항군을 선택하게 된다. “아빠는 더 이상 내가 알던 아빠가 아니야... 나도 저항군에 들어가 사람들의 고통에서 해방해 주고 싶어...” 저항군이 된 리베라와 저항군 멤버들은 서로에 눈빛을 교환하며 의지를 다진다.

한편 해수면 상승으로 노블시티의 메트로시티 지하철과 하수도가 추가로 침수되자 멜런드는 그녀에게 첫 임무를 부여한다. “리베라 위험 할 수 있겠지만 메트로시티에 대해 잘 아는 네가 할 수 있는 임무야 사실 메트로시티에 기밀 정보를 얻으러 갔던 동료가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어. 네가 가서 확인하고 회수 해올래?” 멜런드는 진지한 얼굴로 리베라를 크게 신용하는 듯 부탁한다.

“응 알겠어. 이젠 나도 많이 강해져서 할 수 있을 거야.” 리베라의 강한 신념과 자신감이 느껴지듯 대답했다.

멜런드는 리베라에게 일부가 침수된 메트로시티 내부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산소 호흡기와 산소 탱크를 전달한다. 그리고 멜런드는 하수도 청사진의 USB 의 생김새를 설명하며 리베라에게 USB 의 회수를 부탁한다.

[메트로시티]

리베라는 산소 호흡기와 산소 탱크를 착용하고, 메트로시티의 어둠 속으로 떠나 USB 를 획득하기 위한 위험한 여정을 시작한다.

리베라는 메트로시티 내부를 탐색하다가 구세군이 죽인 저항군의 시체 속에서 봉투에 담긴 USB 를 발견한다.

리베라는 이 발견을 통해 저항군 동료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느끼며, 청사진을 안전하게 가져와야 한다는 임무를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 Chapter 5 : 엔딩

[트윈스카이 타워]

리베라와 저항군은 트윈스카이 타워에서 위험한 여정을 시작한다.

리베라와 저항군은 트윈스카이 타워 내에서 세뇌된 신도들을 발견하여 신도들을 타일러 보지만, 그들은 저항군을 공격하며 깊이 각인된 세뇌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닫는다.

저항군은 비밀 예배당에 감금 되어있는 늙은 과학자 컨파이언스를 발견하고 그를 구해준다. 그는 교주가 고의로 하수도를 개방시킨 사실을 알고 있던 최초의 인물로 리프레셔의 기술 분석을 하던 과학자이다. 그가 가진 정보와 능력을 잃지 않기 위해 교주는 그를 죽이지 않고 감금하고 있었다.

저항군은 교주가 고의로 메트로시티의 하수도를 개방시킨 사실을 하수도 청사진을 증거로 고위 간부 아만을 만나게 된다. 이때 아만이 톰의 동생인 토마스를 착취하여 죽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톰과 아만 사이에 전투가 벌어진다.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후 톰이 이기며 저항군은 앞으로 나아간다.

저항군은 비밀 연구소 내부에서 정부가 곧 트윈스카이다워에 헬기를 보낸다는 정보를 교주 혼자서만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Index

알게 되고 헬리포트에 가기 위해 나아간다. 그리고 나아가던 와중 저항군은 교주가 스카이 노블들과 미들시티 주민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된다.

교주는 헬리포트가 있는 옥상으로 도주하며 이제 리베라와 저항군은 새로운 전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

[헬리포트]

주인공과 저항군은 헬리포트에서 교주와 교전한다.

전투가 치열하고 격렬하게 벌어지는 동안, 리베라가 죽을 위기에 처하자, 아빠는 리베라를 대신하여 희생되며 교주와 함께 죽게 된다. 이 희생으로 인해 저항군은 교주를 물리치고 승리를 거둔다.

정부의 헬기가 도착하고 저항군은 도시에 있던 사건들을 설명하며 헬기 팀은 세뇌되지 않은 시민들의 후속 조치를 위해 정부에게 추가 헬기 지원을 부탁한다.

저항군과 리베라는 헬기를 타며 무사히 탈출하고, 테크베이 시티의 어두운 그림자를 뒤로한 채 새로운 희망의 빛을 향해 나아간다. 부모님과 함께한 동료들을 떠올리며, 주인공은 새로운 시작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결심한다.